

학교 예능팀 한 자리에서 기량 뽐내

제1회 포천학생예능경연대회 성료

제1회 포천학생예능경연대회가 지난 25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사물놀이, 기악합주, 한국기악합주, 무용,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경연대회 사물놀이는 초등학교 9개팀과 중학교 2개팀, 고등학교 2개팀 등 모두 13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제2부 경연대회는 기악합주와 한국기악합주가 경연을 마쳤으며 3부 경연대회는 무용과 합창으로 무용은 초등학교 9개팀과 중학교 4개팀, 고등학교 3개팀이 경연을 벌였으며 합창은 초등학교 11개팀과 중학교 7개팀, 고등학교 2개팀이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대회에 앞서 대회장인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은 "이번 대회는 포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 기 학교를 대표하여 평소 애 갈

고 뛰어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자리"라며 "청소년 시절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은 한국기악합주, 무용,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회의 최우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관악독주 ▶최우수 왕방초등학교 정찬용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오수아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차민아
- 현악독주 ▶최우수 일동초등학교 송재진
- 한국관악독주 ▶최우수 영북중학교 오연경
- 한국성악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이지혜
- 독창 ▶최우수 내촌초등학교 정하림
- 한국기악합주 ▶최우수 내

- 촌초등학교 ▶최우수 일동중학교 ▶최우수 일동중학교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최우수 포천종합고 ▶최우수 경북중학교 ▶최우수 선단초등학교 ▶최우수 동남고등학교 ▶최우수 외16명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김경진 외 4명
- 현대무용 ▶최우수 갈월중학교 김진아
- 창작무용(솔로)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김하늘
- 합창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김소정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문인영 ▶최우수 관인고등학교 임현정
- 수채화 ▶최우수 내촌중학교 양은경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이상희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박규리

- 한국화 ▶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주민경 ▶최우수 중리초등학교 이인복
- 소묘 ▶최우수 동남고등학교 지형민
- 서예 ▶최우수 포천초등학교 이은지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한수연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이윤지
- 만화 ▶최우수 보장초등학교 이가을 ▶최우수 내촌중학교 유보경 ▶최우수 포천종합고 지은비
- 만화 ▶최우수 관인초등학교 문희진 ▶최우수 삼성중학교 최지영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김가영
- 구성 ▶최우수 영북중학교 김다희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정소연 ▶최우수 송우초등학교 김재원
- 조소 ▶최우수 갈월중학교 강물결

이외수 기자 les5582@hanmail.net

우리 학교 최고

중리초등학교 편

리듬밴드부 타의 모범 타학교 창단 영향

#사물놀이반 외부공연으로 활력있는 삶 제공

한때 한탄감염 건설시 수물지역이라는 이유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중리초등학교가 특기적성 활성화와 이 학교 출신 이철우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다.

다른 학교보다도 중리초등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한탄감염 건설 예정지로 땅을 막을 경우 수물지역이라 마을도 학교도 물 속에 잠겨 정든 학교와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날 위기에 처해 불안한 나날이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인 소인수 학교의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실정인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은 좌절하지 않고 작은 학교 통폐합이라는 정부의 시도로부터 학교를 지켰고, 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강행의지와도 줄기차게 맞서고 있다.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문회와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이철우 씨와 학교, 학부모가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절실하게 필요한 발표의 공간인 급식실 겸 강당을 2001년 건립한 일은 모두에게 큰 힘을 얻게 하는데 충분했다.

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육에 학부모들과 뜻을 같이하여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고자 상대적으로 모든 여건이 열세인 중리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얻은 해답은 도시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의 회복과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정진력을 가지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다져가게 하는 것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악기도 구입하고 강사도 초빙하여 공립학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악기구입지원과 강사 지원 및 수강료 지원 등 많은 사람들이 중리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결과는 아이들이 자신감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특기적성교육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기적성교육으로 리듬밴드와 사물놀이, 컴퓨터, 연극, 한국화의 활동을 통해 기능을 익혀가



이외수 기자 les5582@hanmail.net

운중성의 미국어 따라가기

● get

'get'이란 이 단어는 '얻다'라는 뜻 외에도 변화무쌍한 요술쟁이처럼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일상대화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뜻을 달리 하며 혼란을 야기하지만 가장 매력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회의나 연회, 모임등에서) 미스김이 안보이는데요(안 나왔나요?) I could't see Miss. Kim here? 아이 쿠든트씨이 미스김히어?

*그녀는 독감에 걸렸어요.

She got a bad cold. 쉬스갓어 바드콜드

영국에 있는 아들 잘 있나? How's your son in London? 하우슈어썬인 런던?

잘 있어, 어제 편지도 왔어. He's O.K. yesterday I got a letter from him. 히스오케이, 예스터데이 아이 갓어 레터프롬 힘.

*문의:운중성(017-723-4977)colyoon@nate.com



수필가 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6)

임학수 '자화상(自畫像)'

너의 웃음은 긴 절벽 위 수반(水盤)에 소리 없이 흘러지는 백합송이

너의 머리는 저 먼 고산(高山) 한낮의 푸른 정적(靜寂)이 쌓이고 쌓여 방울 듣는 그늘

폭풍과 대양(大洋)과 호린 날짜와... 이제는 컷가에 없고

눈은 소리쟁듯 대공(大空)을 달리다가 다시 원을 그리고 황황히 돌아와 잿빛 안개에 덮이구나

이 정열(情熱)의 종언(終焉) 높이 하늘기에 소소아 도사리고 앉은 이 고독(孤獨)!

너의 이마에 오직 아침 저녁 안개자와 결리고 또 걸히도다

감상=해설

'깨끗하고 용솨는 치는 광음을 울리며 내리 쫓은 폭포수 물 정반 위에서 희다흰 백합꽃 송이 같이 고결한 웃음을 흘날리고 고요에 파묻힌 그 어느 곳에선가 들려 올 것 같은 방울 소리를 들으려는 먹먹한 머리의고독과 적망(寂望), 사나운 바람과 넓은 바다와 비바람은 멀리 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눈은 다시 고적의 쓸쓸한 안개 속에 덮이구나 뜨거운 마지막 정열의 꿈은 높이 앉아 씩는 고독의 내 모습이어!'

이 시를 읊노라면 시인 임학수가 얼마나 고독을 씹으며 즐기고 자기가 구성한 시의 세계를 스스로의 날개를 펴고 여행하고 있나를 볼 수 있어 재미있다.

그래서 시를 창작 세계의 자기 여행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191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너는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다년 간 개성 호수둔 여고(해방 후 명덕여중교)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해방 후는 대학교수로 문학 강의를 했고 시집 '석류' '팔도풍물시집' '후조' '필부의노래' 등이 있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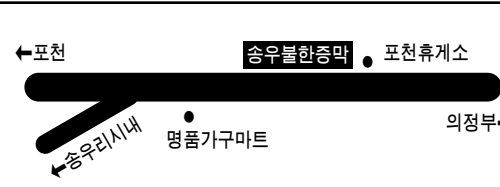
“경기북부지역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송우불한증막**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가정처럼 언제나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휴식공간을 보장합니다”

◆건강을 고려해 소나무 장작불 사용◆



◆넓은 주차공간 확보 ◆동시 100명 입장 가능

송우불한증막은 '여성전용' 입니다



위치: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
전화:031-541-3052~3